

진여, 차별을 떠난 평등한 상태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 자체와 작용으로 인한 혼승이 일어날 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일으키는 불안정한 혼승이 있는가 하면 다 완성되어 일으키는 완성된 혼승이 있다.

범부나 이승들 그리고 처음 뜻을 내어 도에 임하는 보살들은 사물을 식별하는 의식기능을 통해 혼승을 하고 또 혼승을 받아 진여의 이치를 믿고 수행을 해가지만 아직 나와 너를 분간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원만한 마음이 체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고 아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진정한 자유가 구해지지 않았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회복한 상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이는 불안정한 혼승이 된다.

반면, 진리를 체득한 범신보살들은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어 각자의 지혜로운 능력이 자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혼승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본문에서는 미상응 혼승(未相應薰習), 상응 혼승(相應薰習)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의 두 가지 혼승이 다른 점을 다하고 다하지 않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생의 모든 생각은 무명혼승으로 무사이래로 끊임없이 계속해 온 것이나 부처에 이르면 끊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법혼승 곧 진여혼승은 단절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진여가 항상

사물은 본래 마음에 의해 의식돼 홀연히 일어난 망념, 본질을 왜곡 어리석음·무명은 진여 자체엔 없어

혼승력을 발휘하고 법신이 드러나서 작용하게 되기에 중생제도의 이타원력이 멈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혼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진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한다. 진여자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이나 수행정도에 따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언제 생성되었다는 시점도 없고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종점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한결같은 영원불변하는 것이다. 전제에 생기지도 않고(非前際生) 후제에도 멸하지 않는다(非後際滅)는 것은 과거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가서 소멸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영원하고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이 진여에 대해 자체에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문에서 설명하는 말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진여는 ① 큰 지혜요, 광명이며 ② 세상의 모든 대상경계를 두루 빠짐없이 비취주며 ③ 있는 그대로 참되게 아는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④ 자체 성품이 맑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이며 ⑤ 영원하고 즐겁고 주체적이고 오염된 번뇌가 없으며 ⑥ 인과의 법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불가사의한 진리의 법이 진여 자체를 떠남이 없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결함이 없는 까닭에 여래장(如來藏)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래법신(如來法身)이라 한다 하였다.

여래장이란 여래가 갈무리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여래의 씨앗이라

는 뜻이며, 또 진리 자체 그대로의 완전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바로 여래의 법 그대로이므로 이를 의인화하여 여래법신 곧 진리의 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진여를 설명했지만 진여가 가지고 있는 공덕은 차별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말들은 다만 한결같은 진여를 표현한 한 가지 의미 밖에 없는 것이다. 진여의 모습은 이미 대립적인 차별을 떠나 모든 것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입장이나 자타의 분리된 모습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둘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여의 모습을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업식(業識)의 생멸하는 모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본래 마음에 의하여 의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그것들을 보고 망령된 생각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만 어리석게도 홀연히 망령된 일로써 나에게 대치된 대상세계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무명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리석음, 무명이 진여 자체에는 없는 까닭에 진여의 본체는 큰 지혜요 광명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영험 있는 도량

중국에 머물 때 대사관의 영사 한 사람이 찾아와 내게 물었다.

“관음도량에 가서 기도하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고, 문수도량에 가서 기도하면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는데 스님께서 이것을 긍정하십니까?”

“관음도량에 관음 없고 문수도량에 문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긍정치 않으십니까?”

“관음도량에만 관음 나타나면 관음 아니요, 문수도량에만 문수 나타나면 문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이 특정한 도량에만 나타나지 않으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라도 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마음이 청정하면 문수요, 할떡임이 없으면 관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은 이 몸뚱이 법당이며, 청정한 마음을 부처로 모시면 저절로 관음과 문수는 갖게 될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을 뜻하는 메시아가 아닌,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커다란 스승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본주의(神本主義)가 아닌 인본주의(人本主義) 종교이다. 신(神)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화엄경>에서도 밝히고 있듯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법하실 때, 권 주먹도 펴서 열린 진리를 보여 주신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하라고 일깨워 주신다.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을 여러 번 인용해 강조해 온 터라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만을 즐겨 옮겨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불교, 깨달음 중시한 人本主義 종교 가장 영험한 도량은 몸뚱이 법당이다

것입니다.”

요즘 교계의 신문 광고란에 석가모니 시대는 지났고 미륵불의 세상이라는 열도당도 없는 조잡한 광고문을 볼 수 있다. 또는 어느 사찰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와 광고에도 영험 있는

관음도량과 나한도량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상업성 냄새 구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다. 바른 불교와 바른 신앙을 멀리하는 박수무당의 주술적 속임행위이다.

사찰에 찾아오는 신도 숫자를 늘리고 사찰경제를 앞세우면, 사찰의 수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기분이 흔들리고 상식이 비켜가는 행위는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일이다.

신앙의 대상인 문화유산을 상품화하여 신앙의 매개체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부끄러운 알뜰한 상술이다. 영험설화를 앞세우며 미끼 던지듯 몰아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사주, 관상 등의 친질함을 보이며 운명론 쪽으로 기우는 신앙도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당연히 배척되고 사라져야 할 어둠의 그림자이다.

참으로 영험 있는 도량은 이 몸뚱이 법당이다. 영험 있는 부처님은 내 마음의 부처님이다. 끝마무리로 또 하나의 대화를 옮겨 놓는다.

서울에서 온 신도 부부와 나는 대화를 한다.

“사자암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으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더군요. 스님께 서는 사자암에 오면 세월 머무시면서 뭐 영험 있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많이 있었습니니다.”

부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반기며 영험 있는 일을 재촉한다.

“봄에는 어김없이 진달래꽃 피고, 여름에는 숲에서 매미가 노래하며, 가을에는 낙엽이 많아 마당 쓸기 바쁘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고구마 구워먹는 일이 많습니니다.”

나의 친절한 설명에도 부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기적은 없느냐고 재근질한다.

“기적도 많죠.”
“그럼, 스님이 몸소 겪으신 기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즐리우면 자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게으름 없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주는 이, 받는 이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⑭ 시주의 근본바탕

施主體品第三(시주체품제삼)
受者得無量珍寶心大歡喜 施者行少施時心大歡喜 過於受者百千萬倍 能如是施者是為第一行
(수자득무량진보심대환희 시자행 소시시심대환희 과여수자백천만배 능여시시자시위제일행)

成救濟者 飲大悲甘露
(성취구제자 음대비감로)
菩薩行此行 永除 病老
(보살행차행 영제간병로)

번역
시주의 근본바탕에 대한 품 제 3
받는 이는 한량없는 주옥과 보배를 얻어 마음이 크게 즐겁고, 보시하는 이는 적은 보시를 행했을 때라도 마음이 크게

기쁘네, 받는 이보다 백천만 배로 기쁨을 얻습니다. 능히 이와 같은 보시야 이것이 제일 수승한 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성취하는 것은 대 자비심의 단이슬을 먹는 것이니만큼, 보살행을 어떻게 행한다면 인색한 가운데 병들어 늙는 것을 영영 없앨 수 있습니다.

해설
<대장부론> 세 번째 품은, 시주의 근본바탕에 대해 설법한 내용이다. 곧 보시에 있어서 보시를 하는 시주자의 근본바탕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보시를 받는 이는 한량없는 보배를 보시 받음으로써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받는 이가 얻게 되

는 한량없는 보배란 무엇일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아마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시를 행하며 살아야겠다는 보배로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시에 있어서 보시를 받는 이는 단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도 베푸는 이 만큼 따뜻한 마음 씀을 발원하여 그렇게 살기를 바라게 된다.

시주의 근본에 대해 설해 베풀어 주는 보배로운 마음 생로병사 괴로움 벗어나게 해

또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은 한량없는 기쁨이자 위로가 될 것이다. 그 기쁨이 바로 자비(慈悲)의 감동이다. ‘자비(慈悲)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불보살님의 마음이니,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극락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리라.

다음으로 보시하는 이의 공덕을 말하였다. 보시하는 이는 비록 적은 보시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보시를 통한 기쁨은 받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크다고 하였다. 아낌없이 내 것을 털어내어 주는 일이 받는 것보다 백천만 배나 기쁜 일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보시의 이치인가.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보시하여 설령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보시의 과보는 결코 적지 않으리라.

거기다 보시를 행한 공덕의 과보로 인색한 가운데 병들어 늙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생로병사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보시를 행하는 이는 인색한 가운데 병들고 늙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늙어가지 병들지 않는 복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다. 병들고 늙되 남에게 인색한 인간이라는 욕을 먹으며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공덕이 바로 보시라고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성, 종승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세, 지장청, 사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응영만,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홍사이운, 종시영만, 점안의식, 시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충무원에서 교부)

6. 교재및합계 : 경북 칠곡군 악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충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천상의 향기 沈香 沉香

• 청소년 선재동자 합장주 •

청소년 영식을 치유해 주는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합장주

침향(沈香)은 천상의 향기라 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여 줍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도 물결이 않는 것처럼 침향은 마음의 정서를 정화하여 주는 신비의 향기입니다. 산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여과하여 긍정과 용기로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성내고 화나고 분노할 때 손목에 찬 합장주를 코에다 대고 향기를 들면 정도 3번 이상 맡으면 천상의 법천이 향기로 나타나 성내고 분노한 마음을 잠재워 줍니다. 향물원에서 보급하는 침향은 인도산으로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나무로 만든 염주(합장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선물하시어 선재동자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인연의 기회가 되어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한 선재동자의 지혜를 얻어 축복받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용 5만원 남성용 6만원

주 문 : 010-3867-7379(문자·전화), 010-4475-6611(문자)
입 금 처 : 농협 351-0861-9260-63 (예금주 보험사)
생산·보급처 : 불교NGO(카보디아 향불원)

漢文 /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 드리며 마지막 수정판으로 영불과 경전공부 한글 영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 제 1권 (예경/각칭) • 제 5권 (점안)
• 제 2권 (천도/시식) • 제 6권 (독송집)
• 제 3권 (수계/방생) • 제 7권 (토속의식 모음집)
• 제 4권 (장의)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목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